

‘월드컵 본선 정조준’ 홍명보호, 응원 받으며 이라크 출국

6일 이라크전 후 10일 쿠웨이트전... 이강인·중동파 등 5명은 현지 합류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전세기를 타고 ‘결전지’ 이라크로 출국했다. 200여명의 팬이 홍명보호의 출국길을 응원했다.

홍명보호는 2일 오전 9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소집, 이라크로 떠났다.

한국은 오는 6일 오전 3시15분(한국 시간) 이라크 바스와 국제경기장에서 이라크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9차전을 갖는다.

이후 1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으로 장소를 옮겨 쿠웨이트와 마지막 10차전을 소화한다.

4승4무(승점 16)로 B조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국은 이번 6월 A매치 2경기에서 승점 1만 획득해도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대업을 달성하게 된다.

월드컵으로 가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홍명보호지만, 지난 3월 A매치에서 2경기 무승부(오만전 1-1·요르단전 1-1)에 그쳤던 티라 이라크전 승리를 통해 월드컵 본선 티켓과 분위기 반전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홍 감독은 출국 전 취재진을 만나 “월드컵 티켓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다. (유럽파의 시즌이 끝나) 전체적으로 예전에 비해 선수단 컨디션의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40도가 넘는 날씨 등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를 동안 잘 맞춰서 좋은 경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핵심 수비수인 김민재(29·바이에른 뮌헨)가 부상으로 3월에 이어 6월 일정도 함께하지 못하지만, 대표팀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주장’ 손흥민(33·토트넘)이 프로 데뷔 15년 만에 무관 탈출에 성공했다.

손흥민의 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은 지난달 22일 2024~2025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축구대표팀 조현우와 선수들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을 치르기 위해 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라크로 출국하고 있다. /뉴시스

유로파리그(UEL) 결승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를 1-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한동안 괴롭혔던 발 부상으로 인해 컨디션이 온전하지 않으나, 심리적 부담을 덜어낸 대표팀 주장으로서 홍명보호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홍 감독은 손흥민에 대해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일단은 본인의 (출전) 의지 등은 우리가 충분히 들은 상태다. 우리가 두 경기를 소화해야 하기에 무리할 생각은 없다. 현지에 가면 어느 경기에 포커스를 맞출 건지에 대해 더 이야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행히 손흥민의 표정은 밝았다. 특유의 환한 미소로 공항에 들어선 손흥민은 팬들에게 인사를 하는 건 물론, 사인도 해주면서 감사를 표했다.

손흥민뿐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짧은 팬 서비스 시간을 가졌다.

한국 축구 선수 최초로 트리플 크라운(리그·컵 대회·UCL)을 달성한 이강인(21·파리 생제르맹)도 있다.

이강인이 속한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앙 파리 생제르맹(PSG)은 지난 1일 2024~2025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UCL) 결승전에서 인터 밀란(이탈리아)을 5-0으로 꺾고 구단 역사상 첫 UCL 우승을 경험했다.

이미 자국 무대에서 3관왕을 경험했던 이강인은 17년 전 맨유 소속이었던 박지성 이후 처음으로 UCL 트로피를 들어 올리면서 상승세의 기운으로 홍명보호에 합류한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소집해 전세기를 타고 홍 감독 등 본진과 이라크로 떠나는 건 이번 6월 A매치에 소집된 26명 21명이다.

손흥민 등 소속팀 일정을 일찍 마친 유럽파와 조현우(울산 HD) 등 국내파들이 같이 떠난다.

소속팀 일정이 늦게 끝난 이강인과 권경원(33·코르파칸) 등 중동파 4인은 현지에서 합류할 예정이다. /뉴시스



축구대표팀 전진우가 2일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을 치르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라크로 출국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전진우가 본 ‘우상’ 손흥민 “동네 형 같아요”

K리그1 득점 선두로 홍명보호 승선

프로축구 K리그1 득점 선두로 생애 첫 A대표팀에 승선한 전진우(26·전북 현대)가 ‘우상’ 손흥민(33·토트넘)을 처음 만난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은 2일 오전 전세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결전지’ 이라크로 떠났다.

현재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B조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국은 오는 6일 이라크 원정으로 치르는 이라크와의 9차전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할 수 있다.

홍 감독은 이번 6월 A매치에 손흥민, 이강인(24·파리 생제르맹) 등 기존 자원들을 대거 발탁한 가운데, K리그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인 전진우를 처음 뽑았다.

만년 유망주였던 전진우는 전북 2년 차를 맞은 올해 11골을 기록하면서 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실력을 인정받았다.

공격수인 전진우는 ‘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닮고 싶어 했는데, 마침내 대표팀에서 한술밥을 먹게 됐다.

전진우는 이날 출국 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전부터 플레이를 많이 보면서 공부한 존경스러운 선수인데, 직접 보니 동네 형 같았다”며 자신이 느낀 손흥민의 첫인상을 공개했다.

어떤 말을 해줬느냐는 질문에는 “눈을 뜨고 있는데 ‘눈을 따라’고 장난을 쳤다”고 답했다.

전진우는 지난달 27일 대구FC와 리그 경기에서 경험 과정에서 발생한 오른쪽 눈두덩의 부기가 다 빠지지 않았는데, 이 부상 부위를 보고 손흥민이 장난을 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진우는 “나도 빨리 (손흥민과) 친해져서, 편하게 같이 생활하고 싶다”고 전했다.

손흥민을 만난 것뿐 아니라 많은 팬의 환대를 받으며 떠나는 사실에도 감동한 전진우다. 그는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다 보니까 (이제 내가 대표 선수가 된 게) 더 실감이 난다”며 “A대표팀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있었다. 꿈이었는데 여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도 팀원으로 최대한 보탬이 될 수 있게 같이 싸우고 싶다”고 밝혔다. /뉴시스

구례군청 씨름단, 민속씨름 단오장사씨름대회 국화급·단체전 우승

엄하진 선수 국화급 장사 등극, 선채림 선수 매화급 2위 기록... 단체전 우승

전남 구례군은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경상북도 문경에서 열린 ‘2025년 민속씨름 단오장사씨름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구례군청 반달곰씨름단은 국화급과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으며, 매화급에서도 준우승을 기록하며 팀의 위상을 높였다.

엄하진 선수는 국화급 결승전에서 안산 이재하 선수를 상대로 두 차례의 잡채기 기술을 성공시키며 2대0 완승하며 장사 타이틀을 차지했다.

경기 후 엄하진 선수는 “유성온천장 사씨름대회에서 아쉬운 성적을 거뒀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훈련으로 준비해 온 결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더 발전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매화급 결승에 출전한 선채림



선수는 과산 최다해 선수와 점전 끝에 2대0으로 아쉽게 패배하며 준우승을 기록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구례군청 씨름단은 선수 전원이 유기적인 호흡과 높은 경기력을 바탕으로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탄탄한 전력을 입증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성과는 단순한 개인의 승리를 넘어 팀 전체가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구례군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꾸준히 실력을 쌓아가길 바라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광주 남구, ‘구청 소속 레슬링·양궁부’ 신바람

문체부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 지원 공모 선정

광주 남구청 소속 레슬링부와 양궁부가 경기력 향상 및 훈련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게 되면서 신바람이 일고 있다.

2일 남구(구청장 김병내)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했다.

정부 예산을 지원해 선수단의 훈련 환경을 선진화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정부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입상 실적과 경기부 운영 계획, 선수단을 위한 인권 진화문화 조성 및 사회공헌 노력 등

을 엄격히 심사해 남구에서 운영 중인 레슬링부와 양궁부를 공공부문 운영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남구청 소속 레슬링부와 양궁부가 정부 지원을 받게 된 결정적 이유는 선수단의 뛰어난 실력 때문이었다.

레슬링부는 제27회 회장기 전국 레슬링 대회에서 지도자상을 받은 박현서 감독과 2024·2025년 국가대표 코치를 맡고 있는 박삼열 코치를 중심으로 의기투합, 국가대표인 박서영 선수를 비롯해 8명의 선수가 각종 대회를 휩쓸었다.

또 이현창 감독이 이끄는 양궁부는 지난 2023년과 2025년에 국가대표에 선발

된 이승윤과 이동민, 이원주 선수가 전국 대회에 출전해 수많은 입상 실적을 거두고 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구청에서 받은 정부 지원금은 8,000만원이다.

남구는 팀 훈련에 필요한 용품과 장비를 구입하고, 국내·외 대회 출전을 비롯해 전지훈련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2종목 선수단의 경기력 강화와 전국대회 성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구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모사업 선정은 남구청 직장운동경기부의 꾸준한 성과와 노력의 결실이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구청 소속 선수들이 국내외 무대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기자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 다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북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암중 등
리안간 적용, 세대 전용 창
안실 학세권

채원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
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
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
 픈 카페스테이션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
경과 운암산, 종외공원 등
원형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시공 운암 3단지 재건축공사사업조합

시공 GS건설

CG (이현창/건설)

HDC 엔터스일개발